

광주노조, '지역 인수' 힘 보태나

매각 관련 최적 방안 찾기 컨설팅 의뢰

이달 말 결과 ... 광주상의와 보조 관심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 당사자로서 합법 물려나 관망하던 광주은행 노조가 조만간 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광주은행 노조는 '지역 자본에 의한 인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 이어서 광주상의가 주도하는 '출자자 협의회'와 공동보조를 맞출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광주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난 달 광주은행의 경영실적을 진단하고 향후 민영화 추진에 있어 바람직한

방안은 모색하기 위해 조합비 1억 3000만원을 들여 컨설팅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상태다.

노조는 이달 말 나오는 이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세워 민영화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노조는 광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통해 광주은행 민영화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노조는 광주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밝혔다.

지방은행의 설립목적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광주은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용안정과 자율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기자본이 아닌 건전한 자본에 의한 인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2~26일 입찰참가 의향서를 접수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우리금융 민영화는 이달 17~20일 예비제안서 접수, 12월 말 최종 입찰 대상 선정 및 예비실사, 내년 1월 중 최종 제안서 접수, 내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 선정, 상세설사 및 협상 진행, 내년 상반기 계약체결과 금융위 승인 등을 거쳐 마무리 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시장 상인들 전시회 연다

무등시장 상인들이 오는 14~17일까지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축제와 예술을 꽂아주하다'를 주제로 전시회를 갖는다. 시장 상인들은 이번 전시에서 직접 제작한 꿀라주 작품 16점을 선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9월 열린 '무등 하하 시장-젊은 날의 초상 전시회'에 참여한 시장상인들 모습. <무등시장 제공>

기업 81% "내년 사업계획 못세웠다"

대한상의 280곳 조사 ... 환율불안·북 리스크 등 불확실성 커져

내년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내 제조업체 5곳중 4곳은 아직도 내년 사업계획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국내 제조업체 28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1.4%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최근 환율불안, 원

자재가 상승, 연평도 포격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간 사업계획 대신 분기 계획을 세우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목표했던 실적에 대해 52.9% 가 애초 목표만족 달성했다고 답했고 목표 이상으로 실적을 올렸다는 기업이 26.1%였다. 목표에 미치지 못했

다는 곳은 21.0%로 조사됐다. 내년도 매출 목표가 올해보다 많다는 기업은 64.0%, 올해와 비슷하다는 응답은 29.6%였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은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와 중국의 긴축정책, 세계 경기의 둔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부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韓銀 기준금리 연 2.50% 동결

기준금리는 연 2.50%로 동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은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와 중국의 긴축정책, 세계 경기의 둔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부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11월 중 생산자물가 급등

전년동기비 4.9% 올라 ... 5개월째 상승

'도매물가'를 나타내는 생산자물가가 지난달에도 급등했다.

한국은행은 1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 올랐다고 9일 밝혔다. 1년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10월(5.0%)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월 대비로도 0.3% 상승해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생산자물가는 상품과 서비스의 출하가격으로,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지수 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이 많이 올랐다.

공산품은 작년 동월 대비 5.1% 상승해 지난 6월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서비스도 2.2%로 2008년 10월 이후 2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산품은 1차 금속제품(16.5%)과 화학제품(10.0%)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석유제품도 6.5% 올랐다. 전자부품·컴퓨터·영상용품·통신장비는 7.8% 내렸다. 서비스는 자동차보험(4.3%)과 위탁매수수료(19.2%) 등 긍정 부문, 고속버스(5.4%)와 전세 및 관광버스(26.9%) 등 운수 부문에서 많이 올랐다. /연합뉴스

삼성 등 20개사 '전자무역선도 기업' 선정

지식경제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삼성전자 등 20개사를 '전자무역 선도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기업 중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글로비스, LG전자, 벤한관포츠, SK네트웍스, 웅진케미칼, E1, 롯데상사 등 11개사가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

또 경인양행, 지수어페랄, 동양인크, 남양노비텍, 씨제이에코, 기도산업, 롯데상사 등 중소·중견기업 6개사와 한진해운, 유코카캐리어스, 신성해운 등 3개 선사가 선도기업으로 뽑혔다.

선도기업들은 수출입 규모, 대금결제 방식 및 사별 전자적 자원관리(ERP) 도입 수준 등을 고려해 선도기업을 100개까지 뽑힐 예정이다. /연합뉴스

고 시스템'을 도입해 부대비를 절감하고 수출대금 회수를 앞당기는 등 국내 무역업계, 금융계, 물류업계 전반에 전자무역을 확산시키는 역할을하게 된다. 선도기업 가운데 현대자동차, 글로비스, 유코카캐리어스는 이미 e-네고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지경부와 무역협회는 선도기업에 대해 전자무역 도입에 필요한 컨설팅, 연계 솔루션을 우선하여 지원하고 이용료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이어 내년에 수출입 규모, 대금결제 방식 및 사별 전자적 자원관리(ERP) 도입 수준 등을 고려해 선도기업을 100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자영업자 500만명 시대 연다

광주·전남 음식점이 가장 많아

자영업자 수 500만명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가장 많은 생활밀집 업종은 음식점이었다.

국세청은 9일 '지역별·업종별 생활밀집 사업자수 최소 공개' 자료에서 창업자 100명 중 35명은 생활밀집 업종으로 창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의 생활밀집 업종은 음식점이 가장 많았으며 호프의류, 입시 보습학원, 식품종합소매업, 미용실, 부동산 중개업, 노래방 순이었다. 전남 역시 음식점이 가장 많았고 식품종합소매업, 의류점,

미용실, 자동차수리소, 입시보습학원, 예체능학원, 여관업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연령대별로는 20~30대는 의류점·미용실·PC방이 많았고, 40대는 음식점·부동산 중개업 등이 50대는 여관·이발소의 창업이 많았다.

창업에는 유동인구와 이용빈도를 고려하여 대고객으로 삼고 있으며 신인군은 인구수에 비해 의류점, 미용실이 많았으며 서울 노원·양천구는 인구수에 비해 음식점 수가 적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통합 RPC의 투명경영을 위해 생산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농민들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RPC에 대한 자체감사권한 및 감사 결과는 지역 협력에 있고, 공개 여부도 지역 협력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이 출자한 사업법인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14개 단위농협이 공동출자해 지난 2008년 출범한 광주 통합RPC는 지난해 7억1800만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도 8억25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단위 조합의 자체 감사를 받았던 RPC 공장장이 지난 6일 '여을 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1,988.96 (+3.24)
코스닥지수
506.45 (+3.65)
금리 (국고채 3년)
3.17% (+0.09)
원·달러 환율
1,139.40원 (-6.6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9경>

사건번호	매각 물건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 고
			소 재 지	면 및 연 적 [m ²]	
[아파트]					

2010타경 27104	1	부구 용봉동 973-1 삼성아파트 6동 7층 70 3층 133.35m ²	140,000,000	140,000,000	아파트
2010타경 31500	2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37-1 금호타운아파트 6동 6층 602호 84.7450m ²	120,000,000	120,000,000	아파트
2010타경 32526	1	남구 병선동 469-5 금호타운 2동 11층 110 2호 164.97m ²	240,000,000	240,000,000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0타경 28336	1	서구 쌍촌동 1196-6 1층 109.83m ² 2층 85.21m ² 제1동	173,683,060	173,683,060	단독주택
2010타경 29490	1	서구 능성동 638-25 147.2m ² 1층 74.91m ² 2층 40.92m ² 부속건물 1.32m ² 창고 2.31m ² [변소] 제1시외 3층 33m ² [제1시외물포함가격]	36,116,400	36,116,400	단독주택
2010타경 31349	1	서구 흥정동 765-58 155.4m ² 1층 73.59m ² 2층 39.6m ² 부속건물 2.31m ² [광, 현: 소재물포함] 1.65m ² [현: 환경설정]	91,030,920	91,030,920	단독주택

[
